

연중 제 27주일(군인주일)

제 1독서 : 이사 5, 1-7

제 2독서 : 필립 4, 6-9

복 음 : 마태 21, 33-43

순정이

“여러분은 잠편 것과 고상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덕스럽고 정찬할 만한 것들을 마음속에 품으십시오” (필립 4,8).

강론

작은 체험들



이명재 신부 / 군중

* 사모님 구함

얼마 전 부대 본부대에서 전화가 왔다. “신부님, 사모님의 성함이 어떻게 되지?” 비행단 창단 기념일을 맞이하여 부부 동반 회식이 있는데, 신부님도 사모님과 함께 참여하라는 것이었다. 전화를 받은 군중병은 “신부님이 노총각이신데 어디 참한 처녀 있으면 소개 좀 시켜달라.”고 했다. 군중 실장(참모) 대부분이 목사이고 보면 그럴만도 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목사의 삶에 사제의 삶을 비교했을 거니까. 그러나 저러나 “참한 처녀를 소개받게 되면 어찌지!”

* 화려한 입성(?)

영천에서 12주간 훈련을 받으면서 밖에서의 습관은 버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받아들이기로 했다. 부임 첫날 인사 받기에 익숙했던 나에게 전입자들이 선임이 되었고, 단장님께 “신고합니다...”를 외쳤다. 어찌나 어설펠던지. 본당에서 첫미사는 어린이 미사였는데 사제관에서 차를 몰고 성당에 도착하니 너무 조용했다. 미사가 없는게 아닌가 했는데 성당 안에 들어가보니 5명의 어린이들이 있었다. 다음날 주일미사 때는 환영의 꽃다발은커녕 누구에게도 환영한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했다. 어느 동료 신부님은 환영의 깃새가 없기에 환영 준비도 하고 잔치도 하라고 했다. 하긴 교구 후배 신부님이 먼 전방부대에 부임했는데도 아직까지 환영(?)의 전화도 주지 않았으니 할 말은 없지.

* 주께서 군중병과 함께

일주일에 평일미사가 두 번 있는데 많은 경우 “주께서 군중병과 함께”라고 인사한다. 그래도 가끔 나오던 부부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들도 떠난다. 없애버릴까 하는 유혹도 있지만 어찌나 나오는 신자들이 있어 유혹을 물리친다.

* 우리 가족들

우리 본당에는 50여 세대와 40여 명의 사병들이 있다. 가정에 가보면 그래도 ‘집자가’가 집 중앙에 모여져 있다. 그리고 모두들 한가족처럼 지내고 있다. 본당신부인 나는 이들 가족들의 별걸 다 알고 지낸다. 생일, 결혼 기념일, 축일, 심지어 컷데이트 장소, 출산 예정일 등도 안다. 신자 축일 때면 한달에 한 번씩 잔치도 하고 신자 모두에게 책을 선물하기도 한다. 모두들 본당신부님에게 처음 받는 선물이라고 기뻐한다.

교구신부나 군중신부나 모두 군중을 싫어하니 그래도 누군가 남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연장 신청을 한 어느 동료 신부에게 존경을 보낸다. 그리고 새로 들어온 교구 후배 신부님을 환영(?)하고, 전역하신 선배 신부님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군중사제들과 신자 장병들은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어려운 현장에서 분투하고 있다.



세상 끝까지 전해야 할 말씀

한상갑(바오로)

*가을은 역시 수확의 계절

한때 이런 노래가 유행한 적이 있다.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풍년들어 겨울이면 행복하네.” 농경민족인 우리들은 봄이 되면 농사일을 시작하고 가을에는 그것을 거두는 삶의 리듬을 즐기며 살아왔다. 그러나 요즘은 그것이 꼭 맞는 것은 아니다. 농사 기술의 발달로 시도 때도 없이 온상에서 재배된 수박이나 포도 등을 맛볼 수 있다. 과일만 그러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이제는 효자가 아니더라도 한겨울에 병석에 누워 계신 부모님의 입맛을 맞추는 일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생활양식은 너무나 많이 바뀌었다. 입는 것이나 먹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 공간의 구조도 엄청나게 바뀌었다. 그러다 보니 제삿날, 돌아가신 부모님의 혼백이 자식의 집 찾기가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제사 음식 드시기도 불편하시겠다는 농담이 나올 정도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것들이 바뀌어도 우리들에게는 바뀔 수 없는 정서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역시 가을은 우리에게 있어서 수확의 계절인 것이다.

*전교의 달인데 ...

이 수확의 계절인 10월을 우리 교회는 ‘전교의 달’로 지내고 있다. 다른 어떤 의미보다 우리의 정서대로 생각해본다면, 육신을 먹여 살릴 것을 거두는 뜻을 뛰어넘는 무엇이 있을 것 같다. 먹고 사는 일에만 매어달리다 보면 영혼 사정에 대해서는 너무 멀어지기 쉬운 우리를 일깨우는 의미 같은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전교의 의미는 무엇인가? 어떠한 모습으로 전교를 해야 하는가? 길거리에 나서서 어깨띠를 두르고 전단을 나누어주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할 것인가? 아파트 층계를 오르내리며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친구들에게 하느님을 알리는 편지를 써야 할 것인가? 그렇다. 이 모든 것들은 말씀을 전하는 하나의 방법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해야 할 일이 있다.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증거하지 못하는 말씀은 생명력이 약해서 사람들에게 뿌리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요즘은 세상이 너무나 뒤숭숭하다. 새로워지기 위한 몸부림이라고는 하지만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려운 오늘이다. 공직자 재산 등록과 공개에 따른 파문이 보통 여파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옹고 그름을 선언하는 사법부를 비롯해서 국가 공익을 지키는 검찰이 위에서부터 무너지는 현실을 지켜보는 우리들이 어지럼증을 느끼지 않을 재간이 없는 것이다. 이것은 설마가 사람잡는 차원을 뛰어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런 판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일이다.

*그래도 믿을 구석은 있어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는 속어가 지금처럼 실감나는 때도 일찍이 없었던 것 같다. 법관이 재판에 앞서서 자기의 소유 재산에 대한 해명(?)을 먼저하고 법관 고유의 업무를 집행하다니, 당사자나 그것을 지켜보아야 하는 우리 모두가 씁쓸하기 그지없다. 코미디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유행가 가사처럼 “짜가”가 판을 치는, 그래서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사는” 세상이 바로 지금이란 말인가?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희망은 있다. 1800년이나 계속되어 오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숙명적인 대립을 해소하겠다는 약속이 시작되었다. 이처럼 어려운 숙제가 풀리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의 문제라고 풀리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노력해야 한다. 벼가 익는 따가운 햇살이 싫지 않은 요즘이 아니겠는가?



숲정이 산책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전 교 팜플렛 소개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 만일 당신이 영원한 생명과 참다운 가지, 행복, 사랑, 기쁨, 평화 ...,
진정 그러한 것들을 원한다면 영원한 사랑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 모든 것이 그분께 달려 있습니다.

▶ 주님이야말로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인류의 빛이시고 희망이며 구원이십니다.

▶ 주님 진히 세우시고, 함께하는
가톨릭교회(천주교)는 당신을 향해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사람이 됩니다”(2고린 5,17).

* 각 본당에 나누어드린 전교 팜플렛이 하느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팜플렛이 더 필요하신 본당은 홍보국에 주문하시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1장에 100원

1993년 전교주일 교황 담화문

교회는 생명의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1.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요한 10, 10).

예수께서는 이 말씀으로 지상에서의 당신 사명의 의미와 목적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2천 년의 역사 동안 교회는 언제나 이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서 세계 전역에 생명의 문화를 전파해왔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인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생명의 복음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이 ‘기쁜 소식’은 제8차 세계 청소년의 날을 맞아 전세계 젊은이들이 한데 모이게 될 덴버에서 힘차게 울려 퍼질 것입니다. 복음은 하느님 나라와 관련된 구원의 선포이며 이 선포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본인이 회칙 「교회의 선교 사명」에서 강조했듯이, 복음은 “개념이나 이론이나 몇대로 해석할 수 있는 계획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얼굴이 있고 나자렛 예수라는 이름이 있고,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인격”(18항)입니다. 사실 “나는 생명이다.”(요한 14, 6)고 말씀하신 분은 세례를 통한 인간의 생명을 하느님의 생명과 합체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에 대한 인간 마음의 끝없는 갈망을 충족시켜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2. 생명의 복음에 대한 가르침은 어린아이에서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자녀를 둔 가정뿐 아니라 실상 전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커다란 과제입니다. 이러한 근본적 요구에 영감을 받은 남시의 주교 샤를 드 포뎅 장송은 1843년에 올해 창립 150주년을 맞는 어린이 전교회를 창립했습니다. 후에 ‘교황청립’ 기구가 된 이 어린이 전교회는 전세계 교회에 대한 봉사를 통해 하느님께서 섭리하신 소중한 단체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황청 어린이 전교회는 어린이들에게 같은 또래의 어린이들에 대한 선교활동을 장려하는 일을 돕고 있으며, 어린이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신앙인으로서의 존엄성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며,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며, 하느님께 봉사하고자 하는 그들의 열망을 충



족시켜주는 방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복음화 사업에서 젊은이들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린이들의 역량에 큰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3. 전교주일을 맞아 본인은 전세계 모든 신자들, 특히 부모들과 교사들 그리고 교리교사들과 남녀 수도자들이 어린이들에게 선교 정신을 가르치는 일은 어려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어린이들의 선교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들에 대한 선교교육은 교회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하느님께 대한 지식을 키워주는 필수적인 활력의 원천인 기도로써 육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에는 물질적 나눔뿐 아니라 불행한 어린이들이 처해 있는 어려움을 함께 아파하는 너그러운 마음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금년 전교주일의 헌금은 이러한 정신 안에서, 인간 이하의 조건 속에서 살고 있는 세계 각지의 어린이들에게 복음적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쁨을 되찾아주기 위한 구호금으로 쓰이게 될 것입니다.

어린이들로 하여금 복음화와 인간 발전이라는 이중의 노력에 투신케 함으로써 사계생활과 수도생활에 대한 새로운 성소를 짝트게 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본인은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위에서

첨단 부업기구 전시장
에닉스 북부대리점
 대단위 급식장 설비, 컴퓨터 설계
 린나이 가스 기구 판매
 최 병 화(베드로)
 삼례 설악탕 맞은편
 ☎ (0652)291-0291~2

혼수 전문점
 주단·침구·모시·삼베
 계기한복·각종 이불 맞춤
부인주단
 김한중(요한)
 황인재(모니카)
 완산구 전동 남문 옆
 ☎ 84-7294

동성연외(전북 총대리점)
 삼진요업·한국 적연와
 테라코타·성광 요업
 각종 적벽돌 KS 제품만 취급
 권명자(데레사)
 시창 뒤 우진빌딩 옆
 ☎ 84-9005

축! 오픈
조주장 한의원
 조주장(이나시오)
 차속(굴라라)
 중앙성당 ↔ 코아 앞 BYC 2층
 ☎ 254-6382~3

복음을 선포한다

언급한 회칙 「교회의 선교 사명」에서 말했듯이 “신앙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줄 때 더욱 견고해지는 것”(2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교 성소에 대한 육성과 배려는 현실적인 시급한 과제입니다. 교회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줘야 할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으며, “복음선포는 선포자를 요구하고 추수는 추수 일꾼을 요구합니다. 선교는 무엇보다도 복음사업에 평생을 바치고 구원을 가져다 주기 위하여 온 세상에 나아갈 용의를 가진 남녀들에 의하여 완수됩니다”(상동, 79항).

4. 이러한 특별한 기회를 맞이하여 본인은 진심으로 남녀 선교사들과 수도자, 평신도들에게 다시 한번 전교회의 깊은 감사를 표시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목숨까지도 바치는 그러한 헌신과 열정으로 복음화의 전선에 뛰어들어 모든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그들의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를 모두 희망의 복음전파에 쏟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인간의 구속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 따라서 전교주일을 맞아 모든 가톨릭 신자들은 이들 선교사들을 기억해야만 하며, 연대의 구체적 표시를 통하여 그들에 대한 사랑과 협력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복음화와 인간 발전에 관련된 요구들은 크고도 시급합니다. 본인은 세계 여러 대륙으로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이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정신적 지원에 대한 요구뿐 아니라, 물질적 도움

을 통한 구체적 연대에 대한 요구도 있습니다. 믿는 이들, 특히 경제적으로 더욱 넉넉한 가능성을 가진 이들의 마음과 손이 활짝 열려 이 ‘연대 기금’에 기꺼이 기부하기를 바랍니다. 이 연대 기금을 통하여 교황청 전교회회는 선교활동에 필요한 요구 사항들을 충족시켜나가고자 애씁니다. 그중 가장 절박한 요구 사항들은 신자들이 모여서 성체성사를 거행할 수 있는 성당과 경당 신축을 위한 기금, 사제직 지원자와 교리교사 양성 및 그에 따른 물질적 지원금, 성서와 전국 교리서 및 전례서와 같은 신앙교육에 필요한 종교 서적들을 그 지역 언어로 발간하는데 필요한 기금입니다.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사도 4, 32)했던 초대 그리스도교인들을 본받아 서로 앞다투어 자선을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5.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타인에 대한 사랑의 모범은 바로 그리스도의 어머니 이시며 믿는 이들의 어머니이신 마리아 이십니다. 본인은 당신 아드님의 선교 명령을 수행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분께 맡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본인의 사도적 축복을 기꺼이 보내드립니다. 또한 창립 150주년을 맞는 교황청 어린이 전교회의 모든 어린이들, 특별히 불우한 어린이들 곧 병들고 가난하고 버림받은 아이들을 특별한 애정과 기쁨으로 감싸 안아주고자 합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요십이 (1049) 김병모



전주교구사 연표

이 연표는 전주교구사를 편찬하기 위해 자료를 정리하며 작성한 것이다. 사료의 객관성과 글을 쓰는 사람들에 대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사건의 전거를 밝혔다.

김진소 엮음 / 호남교회사연구소
가격 10,000원

무공해 천연세제 및 삼푸 늘 푸른 집<대리점>

- 샘이랑 : 온몸, 삼푸, 린스 겸용
- 천연샘 : 부엌용(아기샘, 맑은샘)

전 경 자(베로니카)
☎ 86-2050
☎ 012-682-6543

진선미 꽃집

각종 생화
신부 부케 전문

미지트 원목가구

중앙동 대리점
이 명 자(마리아)
범 덕 배(디 토)
전주백화점 옆

☎ 진선미 84-2628
미지트 84-8725

국악 연수생 모집

1. 교육: 민요 노래와 장고, 북과 판소리 등
2. 모집: 연구반·전문반
3. 시간: 매일 오후 3시-4시30분
4. 곳: 동국대학교 내 사회교육센터
5. 문의: 77-1941(국악교실)
이 상 덕(대건 안드레아)

드라이크리닝 전문점

양복 5벌 분량을 30분에
값은 7,000원
자동 다리미 설치, 가죽, 카페트
송 호 신(미카엘)
영동동 신일APT 상가
☎ (0653) 855-1547

박승근 피부과 의원

진료과목: 피부과, 비뇨기과
박 승 근(다미아노)
김 종 화(실비아)
금암동 태평양 수영장 2층
☎ 253-3858

뿌리를 찾아서

오룡동 성당

—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과 기도의 터전 —



전북의 서해 관문에 자리잡은 오룡동 성당은 1976년 6월 현 둔율동 성당의 관할구역이 늘어 교세가 확장됨에 따라 성전 건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룡동에 대지 500여 평을 매입하였다. 1978년 7월부터 성전 건축공사를 시작, 1979년 2월 9일에 성전 축성식을 함으로써 둔율동 성당에서 분가하여 본당으로 설정되기에 이르렀으며 이때 당시 신자수 1,207명(361세대)이었다. 본당 소임 수녀로는 거룩한 말씀의 수녀회에서 파견되어 신자들의 영성생활을 보살피게 되었다.

본당 공동체는 레지오 마리아가 활성화되어 본당 설정 1년 만에 꾸리아가 발족되었으며 현재는 35개의

쁘레시디움이 항구한 기도와 사목회를 비롯한 제단체의 활동들이 본당을 살아 숨쉬게 하고 있다. 1985년 9월에 오룡동 신용협동조합을 창설하여 신자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켰으며 1986년 8월에 대지 97평을 매입, 사제관 신축과 성당 증축공사를 시작하여 1987년 6월에 완공했다. 1988년 1월에 오룡동 성당 관할인 나운동 일대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나운동 성당에 831명(275세대)을 분가시키기도 하였다. 이듬해인 1989년 1월 5일 당시 교회 현실 참여의 최선봉에 섰던 이 본당에 화재가 발생, 신자들이 놀라움을 금할 길 없었으나 단합된 힘을 합쳐 화재 복구에 만전을 기하여 4월 30일 축성미사를 봉

헌하였다.

또한 이 본당의 신자들은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하고자 하는 열성으로 지속적 기도와 성서 연구, 성령을 힘입은 봉사활동과 사랑의 실천에 적극적이다. 그리고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성령 밤샘 기도회를 월 1회 개최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바다의 별 성모’를 주보로 모시고 있는 이 본당은 초대 이태주 신부를 비롯하여 현재 제 4대 고경훈 신부와 정삼권 보좌신부가 사목활동에 열중하고 있다.

대전 세계박람회 바티칸관

9. 과학과 한국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인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세상에 알려주는 것을 근본 사명으로 삼는다. 세상은 자연 진리에 따르고 교회는 계시 진리에 따른다고 하여, 이 두 영역이 명확히 구분되기도 하지만, 서로 대립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과학은 되어져 있는 상태를 입증할 뿐이고, 종교는 인간의 사고와 행위의 가치 판단만을 취급한다”(아인슈타인). 그렇지만 종교는 과학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것이 인간의 행위이기에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책임도 갖고 있다.

인류 역사 속에서 근대 과학은 16-17세기 유럽 과학 혁명의 결과에 따른 것이었다. 당시 과학 단체들이 많이 출현했고, 그중 수도회로서 역사적으로 많은 과

학자들을 배출한 예수회는 단연 독보적 존재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예수회가 중국을 선교지로 삼음으로써, 한국도 그 영향권 안에 들게 되었고, 한국 가톨릭은 학문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천문 역법 등 서구 문물의 수입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서양 과학 기술이 일부 지식층에 영향을 주어, 기존의 학문과 전통에 개혁을 촉구하는 실학으로 개화되었고 신앙으로 발전된 것이다.

서양 과학은 한국 가톨릭 역사에서 하나의 도구였다. 비록 한국 과학의 발달에 직접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다고 할지라도 촉발시켜주는 전환점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이후 200년 역사는 과학과 연관시켜볼 때 분명 반성의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전주 식품 상사

전북대리점
 자매품: 못난이 수제비,도토리 막국수, 울면,썩냉면 등
 * 식당·회관용 수제비도 판매함
 서정수(요한)
 정광숙(루시아)
 ☎(0652) 221-9908
 호출기 012-687-3078

차향주 미용실

메이크업 전문
 차향주(안젤라)
 우체국 사거리 전주안과 2층
 ☎ 88-9405

우리온돌전기판넬

전북총판
 ·우리온돌은 에너지 저금통입니다.
 ·2일치 연료로 3일을 땁니다.
 ·24시간 따뜻합니다.
 강우금(대건 안드레아)
 주임순(바울라)
 신대산업 ☎ 78-1363

운장회관

피로연 600석 완비
 한광석(야고보)
 전민자(율리아)
 중앙성당←→한양,목원예식장
 ☎ 254-7533

교구 소식

❖ **군인주일 제2차 헌금**
· 오늘 각 본당에서 실시됩니다.

❖ **교구 사제 연례 제1차 피정**
· 때 : 10월4일 오후5시-8일 점심
· 곳 : 나바위 피정의 집
· 대상 : 복진주, 군옥, 임순남, 무진장, 교구청 신부 일부
· 지도 : 나폴리엘모 주교(인천교구장)
· 준비 : 성서, 성무일도, 미사대장
· 참가비 : 1인당 150,000원

❖ **어린양 잔치**
· 때 : 10월10일(일) 오전9시30분
· 곳 : 윤호관

❖ **예비 신학생 모임**
· 때 : 10월10일(일) 오후2시
· 곳 : 가톨릭센터

❖ **천호 피정 안내**
· 때 : 10월9일-10일
· 주제 : 그리스도인의 삶
· 강사 : 장용주 신부

· 때 : 10월12일(화)
· 주제 : 하느님의 새백성과 삶
· 강사 : 양재철 신부
· 문의 : 73-6600

❖ **주일학교 담당 수녀 모임**
· 때 : 10월12일(화) 오전10시
· 곳 : 가톨릭센터
· 대상 : 전주지역

· 때 : 10월13일(수) 오전10시
· 곳 : 창인동 성당
· 대상 : 군옥, 이리, 익산지구

· 때 : 10월14일(목) 오전10시
· 곳 : 가톨릭센터
· 대상 : 그외 지역

❖ **사랑의 다리 월레미사**
· 때 : 10월4일(월) 오전10시30분
· 곳 : 가톨릭센터 3층 강당

❖ **엄마들을 위한 영화 상영**
· 때 : 10월18일(월) 오후3시
· 곳 : 교구청 별관 1층 소강당
· 제목 : 로렌조 오일
· 내용 : 로렌조라는 다섯살 난 소년이 어느 날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고 그후 의사로부터 사형선고와 다름없는 병명의 진단을 받게 된다. 그의 부모는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 직장대신 도서관, 연구소로 출근하게 되는데 ...
· 회비 : 1,000원

❖ **창조 질서 보존 사진 공모전**
· 내용 : 인간 생명 보호 · 공해 고발 · 자연 보존 · 우리 농산물 · 우리 상품 쓰기
· 종류 : 칼라 · 흑백, 규격 11×14 이상
· 자격 : 제한 없음
· 출품료 : 1인당 1만원(4점 이내)
· 접수 기간 : 10월1일-30일
· 접수 · 문의 : 85-2935 평협

❖ **축! 영명**
· 4일(아씨의 성프란치스코) 김기곤 신부님

성소모임

❖ **사랑의 씨튼수녀회**
· 때 : 10월10일 오후2시
· 곳 : 금암동 성당 교육관 (0652)212-3233

❖ **샬트르 성바오로수녀회**
· 때 : 10월10일 오후2시
· 곳 : 창인동 성당 수녀원 (0653)842-4132

❖ **거룩한 말씀의 수녀회**
· 때 : 10월10일 오후2시
· 곳 : 서학동 성당 수녀원 84-2276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먹거리 공해

인간의 건강과 생명은 우리가 먹는 음식 즉 먹거리에 의해 유지된다. 우리 민족은 오랜 농경문화의 역사 속에서 곡식과 채소를 즐겨 먹어왔고, 기후의 특수성으로 발효식품을 발달시켜왔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로 인해 대량으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은 보다 많은 이윤 추구를 위해 화려한 포장과 과대한 선전으로 소비자들을 현혹시켜 올바른 먹거리 선택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

다. 이러한 먹거리들은 필연적으로 인체에 유해한 방부제, 발색제, 색소, 향료 등의 첨가물이 들어 있어 건강을 해치고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게 한다. 따라서 우리의 식탁을 먹거리 공해에서 해방시키려면 유해식품을 먹지 않으려는 의지가 필요하며, 개개인의 실천적 노력과 그 노력이 하나의 묶음이 되어 우리 사회를 신뢰의 장으로 바꾸어야겠다.

커텐장식 · 혼수이불 · 홈패션

천지방

교우 여러분은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김 대 원(프란치스코)
박 해 순(헬레나)
숲정이 성당 ↔ 현대APT 중간
☎ 77-3519, 253-2461

문구 사무용품 도매 전문

남문 노트사

원 수 관(야고보)
심 경 이(마리아)
다가동 우체국 앞
☎ (0652) 83-3352
FAX 83-7721

축! 확장 이전
결혼 예물 전문(금·은·보석·시계)

고려보석

목주반지 제작
김형태(울리아노) 박태연(마르타)
전동 성당 사거리
☎ 82-9005

산농서실

고 영 선(마태오)
송 춘 섭(로사리아)
· 전교사거리 ↔ 병무청사거리
· 기린B/D(기아차 전시장) 3층
☎ 88-5580

웨딩드레스 전문점 신부의 집

전주점 관동로 88-6951
군산점 평화동 42-2552
최 영 자(헬레나)

변원구 한의원

변 원 구(예로니모)
허 정 자(수산나)
인후동 모래내 다리 옆
☎ 252-1783
253-6355~6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 진 랑
수녀원 82-9662 사무실 82-9661 사목회장 김 동 주

◎ 오늘은 군인주일: 2차 헌금 있음.
◎ 오늘은 성소후원금 납부의 날입니다.

1. 본당의 날: 10일, 체육대회 및 경품권 추첨, 10시30분 미사(본당에서는 새벽 5시30분미사만 있음)
2. 성시간: 7일 저녁미사 후, 3. 병자 봉성체: 8일, 사무실에 신청.
4. 사목회 상임: 8일, 저녁미사 후.
5. 모임: ①울트라아(오늘 장영미사 후) ②자비의 모후Cu(오늘 후 2시) ③성심회, 자모회(5일 어머니미사 후) ④반회장(7일 전 10시30) 6. 김사: 강순래(안토니아) 상가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30만원 보내주셨습니다.
7. 금주 청소: 인후3, 4반, 차주 청소-인후6, 7반.

*** 복지**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 병 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이 상 인

◎ 10월은 로사리오 성월입니다.

1. 군인주일 2차 헌금: 오늘 있습니다.
2. 성체강복: 7일 저녁미사 후, 3. 회합: ①1대건회⑦오늘 공식미사 후⑧ ②사목회(오늘 저녁미사 후) ③구역분과회(5일 오전 10시) ④울트라아(5일 저녁미사 후) ⑤자모회(7일 오전 10시) ⑥여성분과회(9일 오전 10시) ⑦요셉회(10일 공식미사 후) ⑧꾸리아(10일 오후 2시) ⑨청년회(10일 저녁미사 후)
4. 축! 결혼: 10월10일 12시 신랑-장상우(시몬) 군 신부-김경희 양

금주 전례: 해설-최옥남, 독서-지해룡 씨 부부
 봉헌-안철조 씨 가족
차주 전례: 해설-유복규, 독서-정승관 씨 부부
 봉헌-김중성 씨 가족

*** 상관** 사제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 불 섭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한 동 옥

◎ 10월은 로사리오 성월 및 전교의 달

1. 모임: ①꾸리아, 요셉회-공식미사 후 ②안나회-다음주일 ③성체강복 및 성시간-7일(목)
2. 오늘은 교무금 및 성소후원회비 납부의 날
3. 오늘은 군인주일: 모든 미사중 2차 헌금
4. 재대꽃 봉헌: 김마리아-1만원.
5. 대전엑스포 바티칸관을 위한 2차 헌금: 다음주일
6. 차주 전례: 해설-김미남, 독서①남현준 ②임행남
 봉헌-이수복 씨 부부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 종 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 명 웅

◎ 연중 제 27주일(군인주일)2차 헌금 있음(10월은 로사리오 성월)

1. 꾸리아: 10월3일(오늘) 오후 2시.
2. 자모회: 10월6일(수) 오전 10시30분.
3. 사목회: 10월6일(수) 저녁미사 후.
4. 프란치스코3회: 10월10일(다음주일) 오후 2시.
5. 성심회: 10월12일(화) 오전 10시30분.
6. 울트라아: 10월13일(수) 저녁미사 후.
7. 교무금 미납하신 분 납부바랍니다. 실적이 너무 부진합니다.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현 유 복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 직 환

◎ 연중 제 27주일.

1. 오늘 공식미사 후: 꾸리아
2. 다음주: 초등부 어린이양 대잔치(윤호관) 도시락 지참
3. 구역반미사: 2구역 3반, 4반, 5반.
4. 구역, 반장 모임: 10월8일(금) 미사 후.
5. 봉성체: 10월9일(토) 오전.
6. 요셉회, 사라회 성지순례: 10월14일(목)연풍 성지 7시 출발.
7. 청소년사: 5구역 3반, 4반.
8. 10월부터 미사시간 변경합니다. 저녁 8시미사가 7시30분으로 변경.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김 봉 회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정 성 단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이 영 태

◎ 10월은 로사리오 성월(전교의 달)입니다.

1. 금주: ①군인주일(2차 헌금 있음) ②울트라아(공식미사 후) ③재수 글라라형제회(후 1시30분) ④요셉회(후 6시)
2. 빼에따회: 6일(수) 오전 11시.
3. 명화 상영: 6일 저녁미사 후, "아씨의 성프란치스코"
4. 성체강복 및 조배: 7일(목) 오전 10시, 5. 성모성심회: 7일 오후 3시.
6. 차주: ①교구 어린이 어린이양 잔치(전 9시30분-후 5시 윤호관) ②성심유치원 운동회(전 10시, 성심학교 운동장) ③자모회(전 10시) ④예비자 교리 개강식(공식미사 후) ⑤일치의 모후 꾸리아(후 2시) ⑥사목회 정기총회(후 7시30분 강당)-제단제장, 구역반장 모두 참석요망.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 재 후
FAX 82-6686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감 상 근

◎ 축! 건진 237명 성령의 충만한 은총을 간구합니다.
건진성사와 본당의 날에 수고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특별강론 법석규 신부 "성전은 우리 손으로"
1. 오늘은 군인주일 2차 헌금 정성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2. 성시간 성체강복: 7일 저녁 7시30분 전교에 모두 함께.
3. 반회장 연수회: 5일 전 10시30분 냉담자 파악 보고.
4. 어린이양 잔치: 다음주일 전 9시 윤호관, 자모회 수고바람.
5. 회의: 부녀회-6일 어머니미사 후, 제대회-8일 후 3시, 청년성가대-다음주일 저녁미사 후.
6. 가정방문: 15일 12-3반 후 2시30분, 7일 13-1반 전 9시, 13-2반 후 2시30분, 8일 13-3반 전 9시.
7. 축! 결혼: 신랑-조정형(요한) 신부-박은주(마리아) 10일 12시.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 석 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한 병 갑

1. 성모회, 자모회: 오늘 미사 후.
2. 사목회: 오늘 오후 7시.
3. 구역장 월례회: 5일(화) 오후 8시.
4. 전례지순례: 6일(수) 오후 8시.
5. 성지순례: 다음주일-솔피 성지, 회비-만원, 금주까지 접수 마감.
6. 예비자 교리반 인도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7. 신부님 휴가: 4일(월)부터 8일(금)까지-미사 있음.
8. 금주 성당청소: 비사별APT, 차주 성당청소: 한양훈남APT
※ 군인주일 2차 헌금이 있습니다.
금주 전례: 김희숙, 장희연, 독서·봉헌: 김삼희, 정구현
차주 전례: 김경숙, 정준성, 독서·봉헌: 이현희, 한병갑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김 치 삼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장 상 호
FAX 223-3821 사목회장이 동 섭

◎ 오늘은 연중 제 27주일입니다(군인주일 2차헌금)

1. 사목회: 9월8일(금) 오후 8시.
2. 성구회: 오늘(일) 오후 2시(해성학교 코트)
3. 환자 봉성체: 10월5일(화) 오후 2시부터.
4. 구역봉사자 모임: 10월6일(수) 10시30분.
5. 성모회: 10월13일(수) 오전 11시.
6. 울트라아: 10월10일 공식미사 후(교육관)
미사 안내: 금주-천상의 모후, 천사들의 모후
 차주-구세주, 신비로운 잠미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김 순 태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엄 의 도

1. 오늘 2차 헌금(군인주일)이 있습니다.
2. 모임 안내: ①꾸리아-공식미사 후, ②자모회-12일(화) 10시, 성모, 성심회-8일(금) 10시미사 후.
3. 성체강복: 7일(목) 10시 미사 후.
4. 봉성체: 7일(목) 오후 2시,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5. 예비자 입교식: 5일(화) 저녁미사 후.
차주 모임: 울트라아, 기우회
금주 전례: 해설-김용만, 독서①표근중 ②김영자
 봉헌 안내-권일만 부부, 김용신 부부
차주 전례: 해설-나화성, 독서①고영표 ②박춘화
 봉헌 안내-김종실 부부, 장기주 부부